

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—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—

I. 회의개요

‘26.8.12일(수)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금융협회,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「스크래핑*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 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식

- [일시·장소] '26.8.12(수) 10:00, 은행회관
- [참석] (정부)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(주재), 개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 과장 (업계) 은행·생보·손보·여신·금투·핀테크 협회, 저축은행·농협·수협 중앙회, 토스, 카카오뱅크, 국민은행, 교보생명, 삼성증권, 신한카드 (유관기관) 금융감독원, 신용정보원, 주택금융공사, 주택도시보증공사
- [논의사항] 행정기관 및 대법원 등 스크래핑 차단 관련 현황 및 대응방향 등

II. 주요 논의사항

[금융권 스크래핑 활용 현황]

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. 특히,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,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의

거래시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**증빙서류 제출**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**스크래핑**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**대체**하고 있다.

금융권은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, 금융회사 **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**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소비자들이 관련 **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금융회사에 제출**해야 하는 등 **불편이 초래**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. 특히, 아직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**인터넷전문은행**들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또한,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와 주택금융공사(HF)도 현재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어, 스크래핑 차단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·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.

[대응방향]

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였다. 다만,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* 연계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,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* 정보주체 요청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(전자정부법 제43조의2, 행정정보 제공요구권)

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**안전한 스크래핑 활용**을 위해 운영 중인 **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**도 함께 점검하였다. 참석한 금융회사들은 정보의 수집·전송·보관 등 스크래핑 업무 전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 조치와 접근통제,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였고, **보안위험을 최소화**하기 위한 **관리·통제방안**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Ⅲ. 향후 계획

금융위원회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 서나운	02-2100-2620
		담당자	사무관 변경홍	02-2100-2696
		담당자	사무관 김하민	02-2100-2622
<공동>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 정수호	044-201-3337
		담당자	서기관 김도한	044-201-3339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	책임자	국 장 이 석	02-3145-7120
		담당자	팀 장 지행호	02-3145-7135
<공동>	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	책임자	처 장 유영배	051-998-2240
		담당자	팀 장 박혜진	051-998-2251
<공동>	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	책임자	처 장 김성수	051-663-8271
		담당자	팀 장 이준열	051-663-8291
<공동>	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	책임자	부 장 윤현진	02-3705-5326
		담당자	팀 장 방정훈	02-3705-5218
<공동>	금융투자협회 IT지원부	책임자	부 장 장영훈	02-2003-9060
		담당자	차 장 정민철	02-2003-9042
<공동>	생명보험협회 IT지원부	책임자	부 장 여창환	02-2262-6613
		담당자	팀 장 문지환	02-2262-6686
<공동>	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 이용섭	02-3702-8670
		담당자	팀 장 김나운	02-3702-8652
<공동>	여신금융협회 디지털제도부	책임자	부 장 김해철	02-2011-0745
		담당자	팀 장 김영대	02-2011-0716
<공동>	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운영부	책임자	부 장 박도연	02-397-8883
		담당자	팀 장 최승일	02-397-8786
<공동>	농협중앙회 상호금융콕뱅크마케팅국	책임자	국 장 최진선	02-2080-3160
		담당자	팀 장 김경미	02-2080-3156
<공동>	수협중앙회	책임자	부 장 이강식	02-2240-2220

	상호금융기획본부	담당자	팀 장 박정희	02-2240-2221
<공동>	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	책임자	국 장 정진국	02-6949-3110
		담당자	실 장 장수황	02-6949-3110

